

협회소식

'88 시무식 거행



본회는 1월 4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 최상백 부회장, 조옥봉 경북도 협의회장, 한백용 전무이사, 중앙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전동용 회장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여러분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양돈회관이 건립되는 등 양돈산업이 크게 발전했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88년에는 심기일전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회장은 또 「금년에는 내부적으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에 의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특히 조직관리(지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회장은 이밖에도 부서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전 회장은 구랍 30일 가진 '87년도 종무식에서 협회 발전에 공이 큰 지도부의 최승덕 과장대리와 김정소의 지흥근 기사에게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

돼지 오제스키병 긴급 대책위원회 개최

본회는 최근 돼지 오제스키병이 경기도와 경남 등 4곳에서 또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랍 29일 양돈회관에서 긴급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 한백용 전무이사, 이명복·최선광·곽용승·정영찬 이사와 최희태 광주 지부장, 이선구 수원지부 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돼지 오제스키병의 발생에 따른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제스키병의 확산을 막고 초창기에 이 질병을 박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에 대해 4개항의 대책 건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대책위가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전국의 모든 중

돈장의 돼지를 혈청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종돈장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일반 양축가가 안심하고 종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것. 또한 혈청검사에 합격한 농장에서만 종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혈청검사결과와 검사기피농장의 명단을 「월간양돈」에 게재할 것.

둘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도별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제스키병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이해를 도울것.

세째, 인공수정용 돼지의 혈청 검사를 의무화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

네째, 정부에서 일정기간 오제스키병에 대한 신고기간을 주고 양축농가의 신고를 받아, 이 기간중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특별 지급해 줄 것. 또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액을 대폭 현실화 해 주고 일시불로 신속히 지급해 줄 것.

본회는 연초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확정·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는 오제스키병의 초기 박멸을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양돈농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안양가축위생연구소의 안수환 병독과장이 오제스키병의 발생상황, 특징, 방역대책에 관해 참석자들에게 1시간동안 설명했다.

전국 임원·지부장회의 및 송년회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22일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국 임원·지부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마지막 임원·지부장회의와 본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송년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접할 때마다 축

산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전국의 임원·지부장과 회원 동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지난 7월에 개관한 양돈회관은 대한양돈협회 창립 13주년의 결실중의 하나로 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회장은 「88년도에도 금년도의 성과에 못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가공산업의 지원육성과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계당국에 정책지원등을 요구해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회장은 「88년에는 전국 양돈인이 더욱 단합하고 협력하여 성숙한 양돈인, 성숙한 협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본회 한백용 전무이사의 '87년도 협회 주요 활동보고와 '88년도 양돈경기에 대한 대책토의가 있었다.



한편, 본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 송년연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를 위로하고 '88년도에는 양돈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송년연에서 전동용 회장은 그동안 양돈산업 발전과 협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 (주)퓨리나 코리아(대표: Paul Van Walley

hem)와 (주) 동방(대표: 이각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 회장은 '87년도에 타 지부의 귀감이 될만한 활동을 보여온 제천·제원지부(지부장: 권준용)와 경남도협의회(회장: 박재근),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철수)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한편, '87년도에 퇴임한 전직 지부장 14명에게 재직 기념패를 수여했다.

정부에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건의

본회는 구랍 2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실제 발병농장의 피해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과 방역을 위한 혈청검사 및 전염병 발생신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 등 4개항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살처분 가축의 평가에 있어서 종축(종돈)은 번식 공용연한 등을 감안하여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종돈 이외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은 발생농장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현실화 해 줄 것 ▷살처분보상금 신청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양축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박멸키 위해 일정기간동안 신고기간을 두어 이 기간내에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차등 지급해 줄 것 ▷살처분 보상금 평가인 위촉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양돈업 경험이 풍부한 생산자를 평가인으로 위촉할 것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원적으로 박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질병의 박멸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본회가 이와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배경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액이 적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지급이 늦어 전염병 발생 신고를 기피한다는 양돈업계의 여론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한편, 본회가 정부에 건의한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산출료는 아래 표와 같다.

본회, 돈육수출 추천기관 지정요청

농림수산부에 건의

본회는 구랍 10일 농림수산부에 본회를 각종 돈육수출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또한 현행 상공부 수출기별 공고상에 수출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는 「냉동돈육」을 수출추천 품목으로 전환·고시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본회는 돈육의 특성상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상품만 수출을 추천토록 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크고,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덤핑을 방지하며, 일본의 돈육 수

본회가 건의한 평가액 산출표

구 분	종 돈	모 돈(F ₁)	수 입 종 돈
산정방법	종돈의 연 평균가(20kg 기준) + (초과 kg당 2,000원×초과체중) - 감가상각비	F ₁ 모돈 후보축의 연 평균가(20kg) + (초과 kg당 2,000원×초과체중) - 감가상각비	종돈 도입가+제경비-감가상각비
평가액	352,600원 (1차산 경산돈)	326,800원 (1차산 경산돈)	1,330,000원 (1년차 외국 수입종돈)

입관세제도에 상응한 수출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건의한 것이다.

또한 본회는 돈육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원료돈의 규격에 따라 현저한 품질관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한 품질의 수출 원료돈(거세돈, 미경산돈으로서 100~120kg의 백색 돼지)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을 추천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돈업 등록제 폐지 건의

본회는 구랍 26일 작년중 양돈업계에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축산법중 양돈업 등록제를 폐지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양돈농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양돈업 등록을 하고 매월 사육두수 현황을 시·군에 보고해 왔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축명령을 내리고 부과금을 부과하며, 등록 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산업의 자연신장율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밝히고 이같이 건의했다.

본회는 그러나, 축산법의 개정전까지 등록의 현실화와 자율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이밖에도 양돈업의 허가상한 두수를 모돈 1,000두로 제한하는 규정과 취지에 반해 종돈업 등록·수출·계열화 등으로 초과두수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위 허가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밝히고, 여하한 경우든(수출·계열화·종돈업 포함) 허가 상한선을 모돈 1,000두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는 ▷ 허가상한선 초과업체는 개정법 시행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초과분은 전량 수출토록 해 줄 것 ▷ 신규 양돈업 허가는 양돈경영안정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것 ▷ 허가규모, 등록규모는 해당규모내에서 종돈업을 등록토록 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미거세돈·PSE돈 수출 금지 건의

본회는 구랍 24일 한국산 돼지고기의 신뢰성 제고와 돈육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 미거세돈이 수출되지 않도록 생돈 검역을 강화해 줄 것 ▷ 지육 혹은 정육 중에서 PSE 돈육(水豚)이 수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의 이와같은 건의는 최근 일부 불성실한 돈육 수출업체가 미거세돈과 PSE돈을 수출함으로써 주요 수입국인 일본으로부터 많은 클레임이 발생해, 한국산 돈육품질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본회는 돈육 수출업체에 대해 국내 돼지고기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돈육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수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지부 양돈 세미나 개최



김해지부(지부장 : 김영립)는 지난 12월 8일 경남·부산양돈업 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념특강에 앞서 중앙회 전통용 회장의 주재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돈불황 대책과 도축장 및 사료 유통 등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국제화 시대에 따른 양돈산업의 대응 전략(동국 대학교 주종환 박사) ▷ 양돈산업 발전방향(본회 한백용 전무이사)을 주제로 한 강의를 있었다.

강의에서 주종환 교수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상대국 수준의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돈농가에서도 자구적인 방안으로 자조금제도 등을 마련,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8 업무용 수첩 제작·회원 등에 배부

본회는 지난해 12월말 '88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전국의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본회가 이번에 제작한 '88 업무용 수첩에는 전국의 지부 및 축산관계 기관·단체 등의 주소·전화번호와 메모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 제작한 '88 업무용 수첩은 표지에 협회명과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희망지부에 따라 지부명이 표기되어 있다.

'88 카렌다 회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는 지난해 12월말 '88년도 카렌다를 제작하여 각 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카렌다는 가로 35.5cm×세로 38cm로 숫자판이며 7장짜리이다. 또 카렌다 하단에는 협회명과 주소·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 협회 단신 ■

이천·여주지부 사무실 이전

이천·여주지부(지부장:박용각)는 1월4일 사무실을 이천군 축협 3층으로 이전했다.

전화는 종전과 같다.

주소: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중리 229-6

전화: (0336)2-4121

협회 가입을 축하합니다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일동

인천지부: 이규진, 엄인규, 김교영, 이규용

부천시지부: 서준수, 박원규

양주지부: 정덕수

화천지부: 한홍수, 지홍만, 진년식, 박명달,
윤용일, 송요환

진천지부: 박광수

아산지부: 송정식, 최원목, 정태복

전남 광주지부: 박세윤, 김한홍, 이연실, 이정태,
기종환

목포지부: 박순열, 이춘식, 김용태

마산지부: 김기도, 강 강, 박정숙, 장판열,
차인환, 조용택, 김정희

울산·울주지부: 강호길

대구·경북지부: 이영창, 박우용